

#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3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9호



## 제주지역, 희망201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115.7도' 역대 최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자원봉사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5나눔캠페인' 종료에 따른 사랑의열매 온도탑 폐막식을 진행했다.(사진)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4

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총 73일 동안 '희망2015나눔캠페인'을 전개하여 32억 6177만 원(모금목표액 28억17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회 창립 이후 역대 모금캠페인 중 최고 모금액으로 사랑의 온도 115.7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제주도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2014제주도장애인 문화예술실태·욕구조사

## 경제적 부담으로 장애인 문화활동 한계

제주지역 장애인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위탁기관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해 9~10월 도내 재가 장애인 400명과 장애인복지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4제주도장애인 문화예술실태·욕구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시 전체의 38.1%가 '경제적 부담'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으며, 2순위로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남과 산북의 차이도 드러나 제주시 소재 장애인들은 '이용시간의 부적합'과 '참여할 수 있는 문

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프로그램 미흡'을 각각 지적한 반면 서귀포시 거주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수단 이용 불편'과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각각 꼽았다. 반면 지난 2013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

### 도내 장애인 등 500명 대상 욕구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1%'로 가장 많아 문화누리카드 등 바우처 사업 활성화 필요

화예술 조사에서는 47.5%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내 장애인복지 현장가와 문화예술인과의 온도차도 확인됐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프로그램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봤으나 장애인복지 현장가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위한 대중교통수단 미흡'을 지적했다. 2순위에선 공히 '경제적 부담'을 선택했으나, 문화예술인의 경우 '경제

적 부담' 외에 '문화예술 시설 내 편의시설 부족'도 불편한 점으로 인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예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44.2%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70.0%가 '지출없음'이라고 응답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1회성 위주의 관람이나 관광 등에 치우쳐져 있는 점도 확인됐다. 61.4%가 '문화예술 공연 등 관람'을 꼽았으며, '지역축제 참여'가 60.4%, '문화예술시설 이용'이 53.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화예술 관련 자조모임 활동'(41.3%)이나 '평생교육 참여'(34.0%) 등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 2면으로 계속

##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확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주도 공무원 총수를 현행 5172명에서 5196명으로 24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정원 증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이 대거 증원되는데 따른 것이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960명)과 의회사무처(112명), 감사위원회(56명), 제주시(833명), 서귀포시(698명)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1038명)에서 1명, 사업소(558명)에서 2명, 읍·면·동(917명)에서 21명이 각각 증원된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제도입니다. 2015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인권문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 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제주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제주행복기자단 • 6

# 영원한 배움의 전당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 서귀포 오석(야간)학교 상록예술제를 다녀와서



▲지난 1월 24일 동홍아트홀에서 열린 제38회 상록예술제 '김정홍과 함께하는 다함께 차차차' 공연 모습

지난 1월 24일 서귀포 오석학교(교장 양봉관) 교내에서 '꿈 찾아 인생 찾아 오석으로' 라는 주제로 축제 한마당 '제38회 상록예술제' 가 열린 현장을 다녀왔다.

이날 축제 1부는 교내에서 친환경비누만들기, 다육이화분심기, 팔찌만들기, 친환경수세미뜨기 등

무료 체험관, 일일찻집, 알뜰장터, 오락게임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떡국, 순대, 어묵 등의 간식이 제공됐다.

2부는 동홍아트홀에서 MC 김성홍의 진행으로 '다함께 차차차' 노래경연 대회 그리고 오석음악단 공연, 민요공연 등 예능발표와 행운권 추첨을 하며 선

생님과 학생들의 작지만 아름다운 한마당 어울림 축제가 펼쳐졌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상록예술제는 오석학교 학생회가 주최하고, 오석학교 자원교사협의회가 후원하며, 늦깎이 학생들이 지난 한 해의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2015년도 한 해를 알차게 계획하고 더욱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다듬고자 준비하는 행사이다.

본인도 오석야간학교의 도움으로 중등검정과 고등검정을 합격할 수 있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지난 날 야간학교에 다녔던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겨 보기도하고 함께 간 자녀에게 아빠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서귀포오석학교는 제주도교육청 등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써 1967년도 개교해 지역주민의 문화교양 함양과 성인 문자해득, 문해정보화 교육에 선도적역할을 해 오고 있는 문해교육기관이다.

양봉관 교장은 "행복한 삶을 지향하려면 오석으로 발길을 옮겨 삶을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석학교가 영원한 배움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처럼 되길 바라본다.

시화전 중 어르신 학생들이 쓴 글을 읽다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지면에 옮겨보고자 한다.

**친구**

늘푸른 반강정자  
나는 평생 글을 쓸 줄 몰랐지 친구야!  
이곳을 알게 해준 친구야!  
편지 써서 사랑하고 싶구나 친구야!  
나에게 세상을 보여 준 친구야!  
너를 위해 오늘도 난 오석학교에 앉아 있네

최용호기자

### 1면에서 계속

지역별 편차도 심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최대 26.6%가량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보다 문화예술 향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경제적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주

는 방안과 더불어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김원필 국장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주에 무대접근이 가능한 공연장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장애인들이 이용이 어렵다. 개별 문화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문화예술 전용극장 설립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팀장은 "자비를 들이지 않아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개발 등은 오는 4월 서울 대학로 구 예총회관에 준공될 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연계해 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소년상담사 시험 제주서 28일 첫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혜경)는 2015년도 제13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 시험(필기시험) 원서접수를 3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 통과자를 제1차 시험 합격자로 한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은 2015년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시행되며, 제1차와 2차

시험에 최종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까지 수료한 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아동학대예방사업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성호)과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지난달 4일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사업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게 된다.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월 식품기탁자

-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 18kg ▲김치원=김치 20kg ▲꽃비나리는뜨락=떡 326개 ▲대왕땅콩상회=주스 320병 ▲텐마크우유=우유 30갑 ▲동원F&B제주=냉동식품등 1,428개 ▲바다를본돼지=라면 40개 ▲삼다유통=삼다수(2Lx6)300팩 ▲서문식품=두부 304모 ▲제주발전연구원=간장 130개 ▲이든이네=멸치 6kg ▲자연드림이도점=빵 83봉 ▲제성상회=햄 65kg ▲제주보리촌=보리빵 600개 ▲파라비게트동광초점=빵 354봉 ▲행복나눔마트=세제 90kg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2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25,000	0
복지사업후원	980,000	0
푸드마켓후원	2,005,000	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종전까지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

이는 종전까지 최저생계비 15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4인가정의 경우 생계비 108만원을 6개월간, 주거비는 2회에 걸쳐 59만 4000원을 지원해 주던 것에 비해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 도, 석 달간 300여가구 발굴

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110만5000원을 6회까지, 주거비 60만 9000원을 12회에 한해 지원한다.

교육비는 40만8000원, 동절기 연료비는 3개월간 월 9만1000원, 그 외 장례비, 해산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현재까지 360가구를 찾아 292가구에 대한 기초

생활 지원이 이뤄졌고, 33가구에 대한 지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제주자치도는 자체 지침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소득기준과 금융 및 재산 등을 초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라도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

시켜 지원이 가능토록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시·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총동원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긴급복지 또는 위기가정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 협의회, 사회복지관계자 간담회 열어

지난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주관으로 '사회복지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제주지역 사회복지관계자들과 함께 농어촌복지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이번 자리는 노인·장애인·지역·여성복지분야별 시설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어촌지역의 전달체계 부실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방안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소득과 복지

를 연계한 복지모델의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의 복지타운 조성을 통한 균형적인 복지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읍면지역에 양로시설과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사회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사 정신건강 '마음학교' 진행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최근 제주시 구좌, 조천지역 거점기관으로 위기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2015년 복권기금 심리정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사진) 복권기금 심리정서지원사업은 구좌·조천 지역내 7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며, 위기 및 부적응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

한 심리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개인, 집단, 가족상담이 제공된다.

박미란 센터장은 "교사가 웃어야 아이들이 웃는다"며 "교사들의 마음 이완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1박 2일 '마음학교'를 통해 먼저 교사들이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사업 선정 이후 첫 행사로 돈내코 아리랑풀이연구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마음학교 행사를 가졌다.

## '바우처' 복지사업에 81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에 81억64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1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분기 이용자 모집을 실시해 연중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사회복지시설 이·미용 봉사활동 지역사회 귀감



이·미용사회서귀포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무료 이·미용봉사 활동이 30년째 이어지며 훈훈한 감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사진)

대한미용사회서귀포지부(지부장 이춘심)와 한국이

용사회서귀포지부(지부장 고종필)에서는 198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현재까지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의 기본적인 위생문제인 이·미용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에도 평안요양원, 정혜재활원 등 3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이·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미용사의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선행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이·미용사회에서는 2014년도에도 평안요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27개소를 방문(207회)하여 7191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주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들에게 무주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로 사는 어르신으로,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의거 임차금액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현재 각 읍·면·동별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개인별로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다른 타 시도 시, 군과 차별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책을 펴고있다"면서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는 희망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난 1996년 제주도 시책사업으로 시작됐다.

# “20년간 간직해 온 꿈을 이뤘습니다”

## 택시기사 이득만씨, 신장기증

“난향 하니 살게마심  
(제주도 방언으로 ‘나누며 살아요’의 뜻)

지난 1월 생면부지 환우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바다 건너간 이득만(59)씨는 수술을 앞두고 한 말이다.(사진)

평범한 택시기사인 이 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밑반찬 배달 봉사하는 온누리 회원이기도 하다. 그가 얼굴도, 이름도 모



르는 환자를 위해 선뜻 장기 기증을 결심한 것은 자신 역시 20년 전 이웃이 보낸 온정의 손길로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에 천공이 생겨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일반적으로 천공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데, 직장 상사가 직접 1시간을 달려 대학 병원에 입원시켜줬습니다” 이 상사는 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위해 수술비도 대신 내줬고, 그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이 씨

는 회상했다.

그때부터 이 씨는 난치병 환자를 위한 후원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장기기증 시민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이 씨의 신장은 12년간 투병생활을 한 40대 여성 신부전증 환자가 이식받게 됐다. 그는 “택시 승객들에게 늘 말로만 나눔을 얘기했는데 이제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좋다. 내가 더 건강해졌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고민 중”이라며 웃었다.

## 손수지는 농산물 푸드마켓 기탁



지난달 조천읍 대흘리에 사는 홍원우씨는 손수지는 농산물 무400kg과 배추 200포기(약 2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나눔푸드마켓(대표 고지환)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무와 배추는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지원됐다.

### 소/식/마/당

####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간담회 진행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 1월 28일 제1차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효율성, 수강아동의 안전 사고, 아동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발전하는 프로그램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사간담회를 2회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늘의 즐거움!내일의 꿈!’ 찾아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가톨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은 작년에 이어 올해 5월까지 발달 장애인의 심리재활프로그램 ‘오늘의 즐거움! 내일의 꿈!’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의 제주지역본부(렛츠런파크 제주)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매주 1회 원예활동, 수영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 노인학대 인식개선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3일 성산읍 일대에서 노인학대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리사무소, 경로당, 파출소 등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서귀포 남원 일대를 시작으로 화북, 조천, 해안동, 제주시내 지역 택시조합에 방문해 인식개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 혼디모양 공연 봉사활동



혼디모양 문화예술봉사단(단장 한용찬)은 지난달 14일 위미에텐요양원(원장 양지연)을 방문해 공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단은 노래,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드림하이’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1월 20일 애덕의 집에서 ‘지적장애인 직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드림하이(Dream high)’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애덕의집 5명과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5명의 이용자들이 모여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올 12월까지 운영된다.

#### 제주은행, 설맞이 송편 나눔 마련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지난달 16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에서 은행 본부부서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노인회, 부녀회,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과 함께 설맞이 ‘따뜻한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노인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이웃들과 나눠 훈훈하고 따뜻한 설을 맞이했다.

#### 도-대구시자원봉사센터 MOU



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은 지난달 5일 대구시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정연욱)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두 센터는 앞으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홍보, 자원봉사 시민 리더십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자문 등 상호간 모든 사항에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 감성자극 문화체험 떠나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 자원봉사자와 함께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제주시내 소재의 극장을 찾아가 ‘국제시장’을 관람하며 극장예절, 편의시설 이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지난달 10일 임정호사장직 직원일동은 광역푸드뱅크로 라면 250박스를 기부했다.

2월이 시작되는 어느날 는데 테이블당 연탄 1장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390원)값을 식당을 이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 용하는 손님들과 직원들

## 연탄 한 장 값 모아 따뜻한 온정 ‘듬뿍’

바다를본돼지, 푸드뱅크에 5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이 함께 모으고 있었어요. 음식업에 종사하니 관련 된 것으로 기부하면 좋겠 다 싶어 연락하게 되었습 니다” 임정호 사장님은 한 경면 반포리에서 연탄구이 고기집 ‘바다를 본 돼지’ 를 운영 중이다.

그는 연탄기부 관련 서 적을 보다 힌트를 얻어 나

만의 방법으로 나눔에 동 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원들과 의견을 모아 연탄구이집이니 테이블 연탄 1장 값을 기부하자 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년 간 10 개 테이블로 운영하고 있 는 자그마한 식당에서 500여 만원이라는 큰 돈

을 모으게 되었고,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 사 장님과 직원들은 의견을 모아 연락을 주셨다.

그 기부금으로 구입한 물품(라면 250박스)는 도 내 5개소인 푸드뱅크와 마 췌트를 이용하는 소외계층에 게 전달해 소중하게 사용 됐다.

## 설명절 맞이 ‘정 나눔 활동’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 장 강철남)는 설 명절을 맞 아 지난달 9일부터 제주도 내 어려운 위탁가정 130세 대를 대상으로 ‘정 나눔 활 동’ 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설 명절 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차례상 지원을 위한 상품권, 쌀, 라면 등 약 500 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후원품은 제주대학교 총학 생회, 제주중부로타리클럽 다사랑회, 동여자중학교 학 생 일동, 제주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하귀초등학교 학부 모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 개발원 등 지역의 단체·개인 후원자의 후원으로 마련되 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과 함께 이에 도움을 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보 낼 계획이다.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 지관은 오는 2일부터 사업 비 2000만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20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 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보일러 및 주택 천장수 리, 도배 등 집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관계 자는 “저소득 가구 집수리

사업 외에도 따뜻한 복지서 비스 수혜가 필요한 가구에 밀반찬 배달, 이동목욕서비 스, 이·미용 봉사, 대청소 등 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속 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은 지난 2008년부터 서귀포 시 동부지역 저소득층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 소/식/마/당

### 사례관리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 5일 사례관리 실천 기관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국사례관 리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 의회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이 사업 은 사례관리사업 운영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1회기에는 중앙대 김성천 교수와 함 께 실 사례를 통해 목표설정, 점검, 평 가를 2회기에는 경인여대 조현순 교수, 서울장신대 장혜림 교수와 함께 사 례 관리 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슈퍼 비전을 받았다.

### ‘일하는 기쁨! 취업을 job(잡)아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2014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 금회 기획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작업 ACTIVE센터 운영 모델화 사업에 선 정되었다. 12월 말까지 매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취업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 7명을 신규 모집하고 중증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맞춤형 신규사업을 통해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적응 훈련을 진 행할 예정이다.

###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기탁



제주교도소(소장 김문태)는 설을 맞 이해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 인효원 과 결연가정 5곳을 방문해 심시일반으 로 모은 성금 175만원과 과일 등을 전 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우한 이웃과 명절을 함께한 김문태 제주교도소장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금까지 제 주교도소가 해 온 것처럼 어려운 이웃 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정보특특 부모교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윤보철)은 지난달 24일 장애아동 부 모 및 장애아동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 를 대상으로 가족지원사업 ‘정보특특 부모교실’ 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실은 제주한라대학교 작 업치료과 채수경 교수를 초청해 ‘감각 적 놀이에 대한 가정지도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감각적 놀이 및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시론

## 아르브뤼 상설미술관이 제주에 근착하기를



고 현 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경계를 나누는 이성사회 주류의 폭압을 경고하면서 유독 정신장애인은 억압기제에 의해 차별이 합당화 되었다고 하였다. 푸코의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 차별 해소는 개인의 극복 의지가 아닌 차별기제의 제거, 인권의 시각에서 획득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예술가들의 특별한 착상은 이성사회에 대한 광기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정신장애의 삶을 산 고희의 작품에서 때론 거친 색채의 광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화가 장 뒤뷔페는 정신장애인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거친 형태의 예술, 광기의 예술을 '아르브뤼

(Art Brut)'라 규정하였다. 아르브뤼는 그들만이 뿔어낼 수 있는 에너지로 표현된 예술로서 프랑스 등 유럽,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 사회통합의 도구와 문화적 가치 가져

하지만 아르브뤼의 작품을 말하기 앞서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는 유럽권인 프랑스의 년 평균 입원 일 35일(1998년)에 비해 233일(2008년)로 7배에 달하며 특히 타인에 의해 입원이 강제되는 비자발적 입원율이 프랑스 12.5%(1998년)에 비해 92.3%(2006년)로 사회적 격리와 배제는 암담한 수준이다.

이 지점에서 아르브뤼는 인권적 시각에서 본다면 자기옹호와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가치를 가지며, 예술작품 그자체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아르브뤼 상설 미술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서귀포에 개

관 예정이다.

4월 개관 예정인 미술관에는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아르브뤼 작가 주영애, 김용안 등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주영애 작가에게서는 원초적 리비도를 체화한 작품세계를, 김용안 작가에서는 마구 그린듯하지만 일정한 패턴의 만다라를 볼 수 있다. 고군산리 오솔길에 위피한 미술관은 90평방미터 정도로 소박하지만 증축예정이고 3만평방미터에 달하는 야외전시장은 생태를 살리고자 하는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 공공적 문화 공간으로 성장하길

원희룡 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였다. 아르브뤼 미술관은 제주에 공공적인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고 채운다는 의미도 크다. 가시면 제주에 터를 잡은 소길택을 그린 주영애 작가의 '밤의 여인'이 유독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아르브뤼 미술관이 제주에 근착하기를 기대한다.

칼럼

## 너와 나의 합의



김길용

시인·수필가

요즘 웹사이트를 열어 보면 정글의 제왕, 사자의 굴욕 장면이 자주 나온다. 몸집 크고 힘 센 코끼리에게 내몰리는 건 그렇다 치고 백호에게조차 당하는 수가 있다. 일대일

의 싸움에서 도망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백호는 한순간에 사자 위로 올라 타 목덜미를 물었다. 믿기지 않게 사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꼼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사자가 버펄로에게 내쫓기는 모습이 라니. 새끼가 먹잇감이 된 걸 보고, 버펄로들이 떼 지어 공격하자 비칠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뒀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얼룩말들은 맹수의 공격 앞에서 빙 둘러 원을 그리며 스크럼을 짜 뒷발질로 방어한다. 그들의 뒷발질은 위협적인 무기다. 천하의 사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그것은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생존 전략이고 지혜다.

### 공동의 이익 위해 한 방향으로 흘러야

그런다고 맹수가 군림하는 밀림의 세계에 지각변동이 온 것은 아니다. 만날 죽임을 당할 수 없으니 방어하려는 것이고, 그런 수단을 궁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게 전보다 더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절대 강자는 없는 모양새가 돼 가는 것 같다.

동물들에 비해, 식물은 무척 평화로운 존재들이다. 동물이 못하는 합의를 이끈다. 솔솔에 가 보면 뻑뻑이 들어서 있으면서도 나뭇가지가 겹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 하늘을 향해 키는 다투되 자리를 봐 가며 공간을 가늠하면서 가지를 뻗는다. 군자의 도(道)를 대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경우다. 머릿속으로는 예상이 쉽지 않지만 막상 적응해 보면 달라진다.

이를테면, 풍경 따라 들길을 걷노라면, 보리와 관상용 양귀비가 묘하게 어울려 있음을 볼 수 있으리라. 보리는 푸름으로 양귀비의 붉음이 강조되고, 양귀비의 붉음이 보리의 푸름을 더욱 빛나는 배경으로 만들어 준다. 보리가 팻무렵이면, 초록에 이삭의 갈색이 덧입혀져 은근한 멋이 풍겨난다. 초록은 동색(同色)이지만, 이질적인 색과 어울려야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일상이다. 상극의 위치에 있는 듯 보여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방향으로 흐른다.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다.

선을 긋기보다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솔숲 속의 소나무가지들처럼.

기고

##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언



강성우

제주시청 통합조사담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3남매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대구 두 자매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홍보부족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지원 조례』(가칭)의 제정 등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자는 제언을 해본다.

정부에서는 11년 5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우선돌봄차상위 지침 도입, 14. 3.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소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및 자생단체의 활용을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등 끈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 9. 도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주 올레 행복 나눔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완벽

한 해결이 어려움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형식적으로 일회성 대책을 내놓는다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긴급·위기가정 발굴 시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 및 의사결정을 위해 읍·면·동장이 선지원 후 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위기가정지원 등 예산확대 및 집행권한의 읍·면·동장 위임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의 경우 표준 사무분장 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 지정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구 구성 등은 새로운 조직이 아닌 기존 조직의 확대를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탐방

(64)제주YMCA

#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역사회엔 평화를!”

## 시민중계실, 청년YMCA, 유스예술단 등 프로그램 다양 고교Y 평화교육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진행 예정

현재 제주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400여 곳에 가까운 사회복지시설들이 산재해 있다. 본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에 신설되어 진행되었던 시설탐방코너를 63호에 이어 64호부터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YMCA는 ‘우리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요17:21)라는 성경구절을 표어로 1844년 영국에서 창립되어 현재 전세계 124국 4500만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살맛나는 제주 사회만들기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제주YMCA를 2월 16일 찾았다.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제주YMCA는 처음 들어가면 ‘제주YMCA’라는 로고가 적힌 3층 건물과 YMCA유치원 부설건물이 조그마한 놀이터와 함께 있다.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진 이 시설은 지하 1층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사무실, 교사실, 사모적실, 총장실, 식당, 유치원 7세반 교실이, 2층에는 유치원교실 겸 프로그램실이, 3층에는 강당(체육관), 회원실, 공무방, 회의실, 옥상에는 인

라인스케이팅장, 축구장, 밴드실을 운영하고 있다.

1951년 창립 후 제주 땅에 뿌리내린 최초의 NGO(비정부기구) 중의 하나이며, 그 역사가 50년을 훨씬 넘는 단체이다. 현재 제주YMCA는 고교Y, 대학Y, 청년Y 등 청소년과 청년사업, 소년축구단, 스포츠 아카데미 등 사회체육 사업, 시민중계실 등 시민소비자 권익 향상 사업, 사회교육 및 문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YMCA 부설 기관으로 YMCA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영·지·체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유치원으로 1994년 개원하여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자’는 원훈 아래, 45명의 교사 및 임직원과 145명의 원아들이 이곳을 다니고 있다.



▲상 : YMCA건물 외관 모습  
중 : 저소득층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감동캠프  
하 : 토요일토스쿨 활동모습.

만 4세반과 5세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반 원아에 한해 방과후 과정도 운영중이다.

김태성 사무총장은 ‘memento mori(메멘토 모리) and ‘ubuntu(우분투)’ 라는 슬로건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2015년에는 겸손하고 봉사하며 남을 위한 삶을 사는 한해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그 예로 다양한 연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8월에는 4·3평화재단과 함께 전국 고교생 150명을 대상으로 평화순례, 4·3교육 등 ‘고교Y 평화교육’을, 신라면세점과 MOU를 맺고 기업사회 환화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 일부인 3,000만원을 기증받아 다문화가정지원, 토요일멘토 등 3개의 프로젝

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 사무총장(원장)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진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세상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722-4405



###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복지」 이야기 ①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회복지소식을 전해주고자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복지」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일본 언론에 보도된 사회복지소식을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사회 무관심 속에 늘어나는 ‘쓰레기 집’ 문제

이번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집과 관련하여 일본 경제신문에서 아동상담소직원과 함께 취재한 내용이다.

오전 9시반,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아동상담소직원은 아파트 단지의 한 집으로 향했다.

이 집은 20대 어머니와 4세의 어린이가 생활하는 모자가정으로 아이의 몸에서 냄새가 심한 것을 이상하게 느낀 보육원 직원의 신고로 아동상담소에 접수되었다.

이 날도 방에는 악취가 심했고, 옷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이들 가족은 모친의 얼마 안되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문제로 전기세도 연체 중이었다. 아동상담소에서는 이를 아동 방치라고 판단하여 어린이를 약2개월간 일시보호하기로 했다.

상담소의 지원으로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집’은 조금씩 개선됐으며, 어머니는 정신장애

가 의심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단 받기를 거부했다고. 상담소직원은 “아이들 위해 많은 지원을 연결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 갈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 대량의 필요 없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모아 버리지 않고 놔두거나 주워오는 ‘쓰레기 집’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배



▲일본NHK에서 방송된 ‘쓰레기 집의 문제와 현실’ 취재장면.

경에는 생활을 유지하는 의욕과 능력을 잃어 자포자기 심리 상태가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상태를 ‘selfneglect(자기무시)’라고 표현하고 있다.

‘쓰레기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도쿄 아다치구는 전국 최초

로 전문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집’에 사는 가정을 방문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

〈참고자료 = 일본경제신문(2014. 8. 4), NHK방송(2013. 10. 1)〉  
〈번역 = 전학봉 사원〉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2) - 몽생이 기자단 2기를 소개합니다.

# “기사도 쓰고 사진도 찍고 많이 배웠어요”

## 몽생이 기자단 2기 활동을 마치며

벌써 2015년 올미년에 새해가 밝은지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여 간의 몽생이 기자단 2기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그동안의 행보를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몽생이기자단 2기는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주중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영상제작동아리 탐나는 미소지음 내 기자단 동아리입니다.

몽생이는 제주방언으로 조랑말이기도 하지만 꿈을 낳는 마을(夢生里)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며 제주사회복지신문 기자단 활동을 통해 우리 제주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자단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모여 지난날의 느낀 점들을 소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생이 기자단 2기 활동 모습.

### 몽생이기자단 비하인드 스토리

**민정현(제주중앙여중 2)** : 기자단활동을 하면서 제주도 내 착한기업(사회적기업)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착한 기업 이곳저곳 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도 쓰고 질문도 하며 직접 일하는 현장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기자단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도 많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게 될 하나의 추억을 만들게 돼서 너무 기뻐요.

**강다은(제주중앙여중 2)** : 제가 리포터를 했던 제주정신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던 달님봉사단(제주교대부

설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청소를 하고 불편하신 분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안마를 했던 것이 너무 기특하고 착해서 나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김주미(제주중앙여중 2)** : 매달 촬영을 가는 것은 재미있기도 했지만 힘들 때도 많았어요. 너무 NG를 많이 내서... 얼마 되지 않는 대본일지라도 그걸 외워서 리포터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고지혁(제주중 1)** : 정말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제주도내 해녀학교나 봉사단 촬영, 사회적기업을 찾아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기자단 활동을 통해 제주도 내를 돌아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하고 싶어요.

**고필주(제주중 2)** : 기사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냥 신문기

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 영상도 찍고 리포터, 감독, 편집, 기사쓰기 등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보람 있었죠.

우리가 촬영할 때마다 수고해주신 영상위원회 선생님, 제주중학교, 중앙여자중학교 담당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보내면 편집해주시고 수정해주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신문 담당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장민엽(제주중 1)** :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뻐요. 사실 토요일 같은 시간에는 그냥 집에서 늦잠 자기 일쑤거든요. 매우 좋은 시간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몽생이 기자단 3기가 탄생합니다. 앞으로의 발걸음도 지켜봐주세요.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글을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몽생이 기자단 2기는 89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몽생이 기자단 3기 기사가 5월부터 연재됩니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18

## 가족의 채무도 갚아야 할까요?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B씨에게는 중증장애인이던 중년의 딸이 하나 있다.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던 딸이 얼마 전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딸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B씨는 한 장의 통지서를 받았다.

딸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였고, 통신요금과 기기대금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후에도 딸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이 개봉되었다며 그에 대한 미납요금을 청구하는 독촉장을 끊임 없이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에 대한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대금에 대한 통지서가 집으로 오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딸을 속여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봉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과연 딸의 채무에 대해 가족인 B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B씨는 원칙적으로 딸 명의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 금액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가족관계에 있을지라도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신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채권자가 딸이 아닌 B씨에게 독촉을 반복하거나 B씨의 재산에 대

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고지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 ◆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

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